



Semantics of Noun Phrases and Copular
Sentences in Korean:contrastive analysis with
Japanese

メタデータ	言語: kor 出版者: 公開日: 2020-06-22 キーワード (Ja): キーワード (En): 作成者: ☒, ☒☒, 金, 智賢 メールアドレス: 所属:
URL	http://hdl.handle.net/10458/6885

한국어 명사구와 계사문의 의미론* -일본어와의 대조를 곁하여-

김지현**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어의 소위 '계사문'의 의미구조에 따른 분류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먼저 계사와 계사문을 정의한 후 계사문을 구성하는 명사구의 의미를 개관하고 한국어 계사문을 분류하였다. Higgins(1979)와 西山(2003)의 의미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계사문을 서술문, 지정문, 식별문, 동일문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유형에 대해 적절한 한국어 예문을 제시하며 정밀하게 분석하였다. 지정문의 분석 과정에서 소위 분열문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논문의 후반에서는 일본어와의 대조분석을 통해 한국어의 고유한 특징을 밝혔는데, 두 언어의 계사문은 의미론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면서도 조사의 쓰임 등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나타낸다. 지면 관계상 다루지 못한 다양한 유형의 계사문 분석은 남은 과제이다.

핵심어: 계사문, 명사구, 의미론, 일본어, 대조분석

1. 머리말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어의 소위 '계사문'의 의미구조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분류의 체계를 정립해 보는 것이다. 먼저 계사문을 정의하고 계사문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명사구를 의미론적으로 분류할 것이며 명사구가 취하는 조사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인데 이 과정에서 한국어와

* 이 연구는 JSPS科研費 17K02734의 조성을 받아 수행되었음.

** 宮崎大學 多言語多文化教育研究センター 准教授

유사한 구조를 갖는 일본어와의 대조를 통해 한국어의 특징을 기술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어 계사문 분석을 표방한 많은 연구는 술어(predicate)에 {이다}를 포함하는 문장을 대상으로 하고, 술어 이외 자리에 나타나는 명사구가 취하는 조사의 출현 양상에 관심이 없으며, {이다} 자체의 형태론적, 통사론적 특징을 밝히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¹⁾ 한편 {은/는}과 {이/가}의 논의로 대표되는 조사의 전통적, 정보론적 연구 및 영어권에서 촉발된 계사문의 의미론을 한국어에 접목하려는 시도는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다}의 특징을 밝히는 것은 한국어학의 매우 중요한 과제이나 계사문 자체의 의미구조와 계사문을 구성하는 또 다른 큰 축인 명사구 및 조사에 대한 통합적 관찰이 {이다}와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사문’을 온전히 파악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상의 모든 관점을 포괄하는 한국어 계사문의 의미론적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하 2절에서는 계사문을 보는 이 논문의 입장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관찰대상을 보인다. 3절에서는 명사구의 종류를 문장 내에서 나타내는 의미에 따라 나누어 보인 후, 4절에서 이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계사문을 분류할 것이다. 3절은 니시야마[西山](2003)의 명사구 분류에 관한 틀을 한국어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4절에서는 Higgins(1979), Declerck(1988), 니시야마(2003) 등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계사문의 의미론을 바탕으로 한국어의 주요 계사문을 분류해 볼 것이다. 위의

1) 오랜 시간 국어학의 주축을 이루어온 {이다}의 품사에 관한 논쟁이 대표적이다. 이 논문은 {이다}의 품사나 형태통사론적 특징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으나 최근의 논의를 중심으로 간단히 소개해 보면 양정석(1986, 2001, 2003, 2010), 嚴正浩(1989, 1993), 배주채(2001), 김의수(2002), 양정호(2003), 임홍빈(2006), 이광정(2008), 목정수(2009) 등은 {이다}를 형용사나 동사의 일종으로 보았고, 남기삼·고영근(1985), 고창수(1992, 2007), 시정근(1993, 2005), 안명철(1995), 우순조(2001, 2006), 최기용(2001), 황화상(2005), 박철우(2006) 등은 {이다}를 조사나 어미 등 접사로 보았다. 이 논문은 이들 논의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으나 {이다}의 품사적 특징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관해서는 이를 용언으로 본 전자의 견해를 따른다.

선행연구들은 영어 및 일본어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이 논문은 한국어의 구문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에 관한 독자적인 기술에 주력할 것이다. 5절에서는 한국어와 일본어가 특히 차이를 보이는 계사문의 조사 실현에 대해 이 논문의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다. 이 과정에서 한국어와 일본어의 소위 주어에 실현되는 주요 조사의 특징을 전통적인 논의와는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6절에서 요약하고 남은 과제를 살펴본다.

2. 계사문의 정의 및 관찰대상

종래의 계사문 연구에서는 ‘계사’ 혹은 ‘계사문’(‘계사 구문’)이라는 용어를 특별한 검증 없이 사용해 온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논문의 관점에서 이들 용어를 정리해 두고자 한다.

‘계사(繫辭, copula)’는 명제 내에서 주(主)개념과 빈(賓)개념을 연결하는 기능이나 형식(日本語文法學會編 2014: 235)을 가리키는 용어로 논리학에서 사용되던 것인데, 이에서 원용된 언어학적 개념으로서의 계사는 아직 보편적이고 명확한 정의를 확립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듯하다. 영어를 비롯한 인구어에서 계사는 동사의 일종으로 여겨져 {be} 동사류를 가리키는 일이 많고 이를 본받은 일부 한국어 논자들은 {이다}를 계사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계사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 및 한국어와 영어의 구조적 차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두 어휘의 일면만으로 이를 동일시한다면 한국어 고유의 문법기술은 어려워질 것이다. 실제로 언어에 따라서는 {be}동사에 해당하는 어휘 자체가 없거나 같은 언어 안에서 수의적으로 실현되기도 하는데(김주원 1994, Stassen 1997, Pustet 2003, Dixon 2010 등), 그렇다고 해서 이들 언어에 계사가 없거나 불완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 한국어에도

“우뚝 솟은 저 산이 인수봉”(金光海 1983: 5),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나 냉면”에서처럼 {이다}가 없는 계사적 표현이 가능하며 한국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일본어도 유사한 현상이 존재한다. 일본어에서도 술어 자리에 오는 {da}나 {dearu} 등을 계사로 보기도 하지만 “zo-wa hana-ga nagai”(코끼리는 코가 길다)로 잘 알려진 미카미[三上](1963: 6)는 ‘일본어의 계사는 {wa}’²⁾라고 단언하였다. ‘두 개념을 연결’하는 것이 계사라면 위에 열거한 한국어 예시의 {이/가}나 {은/는}도 계사라고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조사와 {이다}가 모두 나타나지 않은 “나 냉면”이나 “이거 사과”와 같은 표현에 계사적 의미가 없다고도 말할 수 없다. 이상의 논의는 언어학적 계사를 하나의 어휘 항목으로만 보는 것이 개별 언어의 기술에 있어서나 보편적 언어 현상의 기술에 있어서나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언어학의 계사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개념과 개념을 연결하는 기능 자체로 본다면 앞서 예로 든 표현들은 조사나 {이다}의 유무와 관계 없이 모두 ‘계사적 표현’으로 묶을 수 있을 것이다. 계사를 하나의 어휘 항목으로 보기 힘들다면 문장 내에서 두 개념을 연결하는 기능에 중점을 두어 관찰의 대상을 ‘계사문(繫辭文, copular sentence)’으로 확장해 보는 것이 하나의 묘안이 될 수 있다. 즉, ‘계사’라고 지칭되는 특정 어휘의 유무에 상관없이 문장 전체가 주개념에 빈개념을 연결하는 의미를 갖는다면 이를 계사문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념과 개념을 연결한다고 할 때의 ‘개념’이란 어디까지일까? 많은 경우 언어학에서는 어휘를 품사로 분류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품사적인 관점에서 ‘개념’을 정리해 본다면, 앞선 한국어 예시에서 각 표현에 나타난 두 개념은 모두 한국어 품사 체계상 명사에 해당하는 것이고, 실제로 종래 이루어진 계사문 논의의 대상은 대부분 술어에 명사를 포함하는 ‘명사술어문’(명사문)이었다. 그렇다면 ‘개념’은 ‘명사’라고 봐야 할까? 그러나 이에 대

2) 한국어의 {은/는}에 견주어지는 일본어 조사. 실질적으로는 {은/는}과 다른 양상을 띤다. 후술 참조.

한 예외는 금세 발견된다. “사자가 영양을 쫓아가는 것은 영양을 먹기 위해서다”와 같은 문장은 술어가 명사가 아니지만, 한국어 화자의 직관상 계사문이 아니라고 하기는 힘들다.³⁾ 한편, 영어의 “Mary is kind”, “The book is on the table” 등에서는 계사인 (be)동사가 형용사나 위치 표현을 명사에 ‘연결’하는데, 그렇다면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한국어 문장 “영희는 다정하다”, “책이 탁자 위에 있다”도 계사적 표현으로 볼 수 있을까? 나아가 이들과 흡사한 구조를 가진 “영희는 공부한다”, “어머니는 늙으셨다”, “매미가 운다”, “우리가 이겼다” 등의 동사술어문도 모두 계사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 형용사나 존재사, 동사 술어를 모두 하나의 ‘개념’으로 인정한다면 소위 주어와 술어를 갖는 모든 문장을 계사문으로 볼 수 있겠다. 실제로 日本語文法學會編(2014)에서는 계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모든 용언이 계사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는 계사나 계사문이라는 범주 자체가 무의미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일정 형식과 특징을 갖춘 ‘계사문’의 범주를 인정하고 그 독자적인 특징을 기술하는 것이 언어학적 가치를 갖는다고 본다.

계사문을 구성하는 ‘개념’의 의미가 ‘명사적’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어떤 언어에서 주개념과 빈개념인 두 명사를 연결할 때 주요하게 사용되는 어휘가 있다면 그 어휘가 실현된 문장은 계사문일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그러나 품사라는 범주 역시 절대적이거나 범언어적이지 않다. 가령, 명사는 전형적으로 사람, 사물, 장소 등 개체를 나타내지만 추상적 개념이나 행위, 동작을 나타내는 명사도 있으며, 어떤 언어에서 명사인 개념이 다른 언어에서는 형용사나 동사일 수도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한다면, Croft(1991), Stassen(1997) 등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3) 종래에는 ‘-어서’, ‘-는지’ 등을 갖는 표현들이 명사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위해 이러한 문장(분열문)을 예로 들고 이들 표현이 {이다} 앞에 오므로 명사적이라는 취지의 논의가 있었다(서정수 2006 등). 이러한 관찰이 타당하다면 {이다} 구문을 이루는 ‘개념’은 적어도 명사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단, 분열문이 다른 명사술어문과 어떻게 다른지에 관한 명확한 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후술 참조.

명사나 형용사, 동사와 같은 품사는 각각의 원형(prototype)을 지니면서도 뚜렷한 범주적 경계를 갖지 않고 서로 연결되는 연속체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계사문의 ‘개념’을 정의할 때에도 이러한 관점이 필요하다. 즉, 계사문을 구성하는 ‘개념’은 명사가 중심을 이루되, 품사 자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두 명사구로 구성된 “철수는 부자다”, “내 차는 빨간색이다”, “이 청년은 미남이다”가 계사문이라면 “철수는 돈이 많다”, “내 차는 빨강다”, “이 청년은 잘생겼다⁴⁾”가 계사문이 아니라고 할 근거는 없으며 최소한 전자와 후자는 의미론의 틀에서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명사술어문에만 {이다}가 따로 필요한 것은 한국어 어휘 체계의 사정일 뿐 명사술어문과 형용사, 동사술어문이 의미론적으로 명확한 경계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의미론은 이들 품사적, 언어적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면 한국어에서는 (1)-(3)과 같은 표현들을 계사문 및 관련 구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취급해 온 전형적인 ‘A는 B이다’ 혹은 ‘B가 A이다’류의 계사문(명사술어문, 명사문)이다. (2가-라)는 각각 {이다}가 없는 명사술어문, 소위 분열문(cleft sentence), 주개념이 언어화하지 않은 명사술어문,⁵⁾ 주개념과

4) 술어의 품사만 보면 이 문장은 동사문이다. 일반적으로 동사가 계사문을 구성하기 힘든 것은 행위, 동작 등을 나타내기 때문이지만 이 문장은 명사문 “이 청년은 미남이다”와 같은 주어의 속성을 나타낸다. 이 외에도 “저 길은 꼬불꼬불하게 휘어져다(저 길은 꼬부랑길이다)”, “두 사람은 닮았다(두 사람은 닮은꼴이다)” 등에서와 같이 동사술어가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는 대체로 명사술어문과 의미론적으로 평행하다는 점에서 준계사문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다. 형용사술어문도 마찬가지다. 미카미(1953: 41)는 동사문과 명사문(형용사문 포함)의 구별이 서양, 특히 프랑스의 언어학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동사문은 사상(事象)의 경과(process)를, 명사문은 성질(quality)을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구별이 인구에보다 일본어에 더 적합하다고 보았다. 한국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의미에 기반한 동사문과 명사문의 구별은 대체로 보편적이라 하겠다.

5) 한 심사위원의 지적대로 일본어에서는 “yuki-da(눈이다)”, “yuki(눈!)” 및 “shuppastu-da(출발이다)”와 같은 발화문은 주어와 술어가 분리되지 않는 소위

빈개념의 의미 관계가 특수한 명사술어문의 예시이다. (3)은 ‘A는 B가 C’류를 보인 것인데, 여기서는 편의상 (1)을 기본형, (2다, 라)를 특이형, (3)을 확장형이라고 불러 보겠다.

(1) 가. 아인슈타인은 천재다.

나. 반장은 철수다. (철수가 반장이다.)

다. 저 사람은 김 사장 큰딸이다. (김 사장 큰딸이 저 사람이다.)

라. 지킬 박사는 하이드 씨다. (하이드 씨가 지킬 박사다.)

(2) 가. 첸카이거는 후지 교수와 동갑내기인 1952년생.

나. 우리나라에서 왕이라는 칭호를 쓰기 시작한 것은 고구려 때부터이다.

다. 눈이다! cf. 눈!

라. 난 냉면이다. cf. 난 냉면.

(3) 가. N서울타워는 높이가 236.7미터다.

나. 유노운호는 발명이 취미다.

다. 코끼리는 코가 길다.

라. 냉장고는 삼성이 좋다.

이 논문에서는 (1)의 기본형 기사문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2가)와 같이 {이다}의 유무와 상관없이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문체상

‘一語文’이라는 견해가 있다(오노에[尾上] 1998). 그러나 일본어 一語文에는 “oi, haizara-da(이봐, 제벌이다)!” , “mizu-da(물이다)!”(제벌이 및 물을 달라는 의미) 등 한국어의 ‘이다’로는 나타낼 수 없는 표현이 포함되며, 최소한 한국어의 ‘X이다!’형 구문은 현재라는 시간적 조건과 발화현장이라는 공간적 조건 내의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감탄, 제시, 알림을 나타내는 소위 ‘현장발화적 구문’(남길임 2004)인 바, 화자 눈앞의 주개념이 언어화하지 않은 명사술어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일본어 {da}와 한국어 {이다}의 형태통사론적 차이에서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으며, 한국어도 {이다}가 붙지 않은 “눈!”, “물!”과 같은 표현은 一語文의 관점에서 다룰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어 ‘X이다!’ 및 일본어 ‘X-da!’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논의는 김지현[金智賢](2017)에서 전개되었다.

의 목적으로 {이다}를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가) 자체는 (1가)와 같은 부류의 계사문이라 할 수 있다. (2나)의 분열문은 의미론적 연관이 있는 (1나)의 논의에서 언급할 것이다. (2)의 특이형과 (3)의 확장형 계사문은 (1)과 마찬가지로 한국어학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 왔으며, 특히 (2)는 한국어와 일본어가 큰 차이를 보이는 계사문이다.⁶⁾ 이들은 (1)과 통일된 관점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으나 지면상 후고를 기약한다. 위의 예시는 모든 계사문을 망라한 것은 아니며 특히 “난 그 의견엔 반대다”, “내일부터 야근이다”, “출발이다!”와 같은 동작성 명사술어문을 비롯한 다른 많은 종류의 계사문 및 관련 구문이 존재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계사문인 (1)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보겠다.

3. 명사구의 의미

이 절에서는 니시야마(2003)에서 다루어진 명사구의 특징, 특히 명사구의 지시성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 이를 한국어에 적용하여 명사구를 몇 가지로 분류해 보일 것이다. 상술했듯이, 전형적인 계사문이 주개념과 빈개념을 나타내는 두 명사구로 구성된 것이라고 했을 때, 문장 내의 명사구의 성질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의해 체계적인 계사문의 분류도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다. 니시야마(2003)은 1980년대 무렵부터 이루어진 니시야마 자신의 일본어 명사구 및 계사문 관련 구문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을 집대성한 것이다. 그는 영어의 분열문을 의미론적으로 분류한 Higgins(1979)의 논의가 실질적으로 두 명사구

6) (2가)와 같은 명사구로 끝나는 문장은 한국어보다 일본어에서 매우 발달해 있으며(김은애[金恩愛] 2003), (2나)의 분열문도 한국어와 일본어의 양상이 다르다(김지현 2018). (2다)에 대해서는 각주 5)에서 밝힌 대로이며, (2라)와 같은 특수한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계사문 또한 한국어가 상당한 제약을 지닌 데 반해 일본어에서는 광범위하게 사용된다(오고시[生越] 외 2018, 김지현 2019).

를 갖는 기사문의 분류라는 점에 착안하여, 일본어의 조사와 문형에 관한 전통적 논의를 이에 접목함으로써 일본어 기사문의 연구를 독자적으로 발전시켰다. 그 이론적 바탕은 1970년대 Sperber와 Wilson에 의해 고안된 ‘관련성 이론(Relevance Theory)’이지만, 해당 이론에 대한 논증보다는 언어 현상의 예리한 분석과 정교한 기술이 그의 논의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이 논문에서 주목하는 점은 ‘지시성’ 여부에 따른 문장 내 명사구의 파악 방식이다. 이는 종래 영어권에서 이루어진 기사문 분류의 정밀성을 높일 뿐 아니라 일본어나 한국어와 같이 명사구의 성질을 표시하는 문법적 기제를 따로 갖지 않는 언어의 기술에 유용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니시야마(2003)의 명사구 분류가 한국어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이고 기사문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관련 구문도 소개하고자 한다.

명사구는 크게 ‘지시적 명사구’와 ‘비지시적 명사구’로 나눌 수 있다. 지시적 명사구는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refer to) 기능’을 갖는 명사구를, 비지시적 명사구는 그러한 기능을 갖지 않는 명사구를 가리킨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어떤 명사구가 지시적인지 아닌지는 문장 내의 명사구가 술어와의 관계에서 담당하는 의미기능으로서의 문제이며, 문장으로부터 독립된 명사나 명사구 자체가 갖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다(니시야마 2003: 59). (4)의 각 문장에 나타나는 “영희가 좋아하는 배우”는 모두 세계에 존재하는 개체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지시적’이며, 같은 명사구가 (5)에서는 모두 ‘비지시적’으로 사용되었다. 즉, (5)의 “영희가 좋아하는 배우”는 세계에 존재하는 특정 개체를 가리키지 않는다.

(4) 가. 영희가 좋아하는 배우는 아프다.

나. 철수는 영희가 좋아하는 배우에게 편지를 썼다.

다. 영희가 좋아하는 배우가 어젯밤에 죽었다.

라. 철수는 민호에게 영희가 좋아하는 배우를 소개했다.

(5) 가. 영희가 좋아하는 배우가 있다.

나. 저 사람이 영희가 좋아하는 배우이다.

다. 영희가 좋아하는 배우가 장동건에서 원빈으로 바뀌었다.

라. 철수는 민호에게 영희가 좋아하는 배우를 알려줬다.

니시아마(2003: 60)에 의하면, 명사구의 지시성이라는 범주는 한 문장 안에서 정해진다는 점에서 의미론상의 개념이며, 명사구의 지시성 여부와 어떤 지시적 명사구의 지시대상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다. 즉, 문장 내의 명사구가 지시적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의미론의 영역이지만, 지시적 명사구의 지시대상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것은 화용론의 영역이다. 어떤 명사구가 문장 내에서 지시적 혹은 비지시적인 해석을 동시에 갖는 중의적인(ambiguous) 경우는 많지만 이러한 중의성(ambiguity)은 대체로 해당 문장이 사용되는 구체적인 문맥 안에서 화용론적으로 해소된다.⁷⁾ 이하, 지시적 명사구와 비지시적 명사구에 대한 니시아마의 논의를 간략화하여 설명하겠다.

7) 여기서 말하는 의미론의 영역, 화용론의 영역은 이 두 영역을 개념적으로 철저히 구별하는 관련성 이론(Relevance Theory)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 이론에서는 발화 해석의 층위를 크게 문장의 추상적 의미인 ‘논리형식(論理形式, logical form)’, 논리형식이 다양한 화용론적 프로세스를 적용받아 발전한 ‘표의(表意, explicature)’, 문맥 등에 의한 화용론적 추론을 통해 파생되는 ‘함의(含意, implicature)’(일본어에서는 Grice의 함의와 구별하기 위해 ‘推意’ 사용)의 세 층위로 나눈다. 예를 들어, “지우개 있어?”라는 질문에 화자가 “수정펜은 저기 있어”라고 대답했다고 했을 때 이 답변은 “수정펜이 x에 있다”는 논리형식에 “저기”가 어디를 가리키는지를 특징하는 지시부여 등의 화용론적 프로세스를 거쳐 대략 “(다른 건 어떻든) 수정펜은 철수 책상 위에 있다”라는 기본표의로 해석되며 “지우개는 없다” 등의 함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관련성 이론에서 말하는 화용론은 종래의 의미론 영역의 일부라 하겠다.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관련성 이론의 그것을 따른다.

3.1. 지시적 명사구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을 지시하는 대표적인 명사구는 발화행위 의존적인 ‘지시(deictic)’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그 내재적인 성질로 인해 문장 안에서 지시적 명사구가 오는 위치에만 사용된다(니시야마 2003: 61). “그분”과 같은 명사구는 (7)에서처럼 ‘조용(anaphor)’적으로도 사용되는데 이때도 물론 지시적 명사구이다.

- (6) 가. 그분은 나를 보자 활짝 웃었다.
 나. 여긴 너무 답답하다.
 다. 어젯밤의 일이 되살아났다.
 라. 사람 무시하고 있는 건 바로 너야.
- (7) 그런 마음을 가르쳐준 분은 저의 할머니였습니다. 그분은 다정한 분이셨습니다.

한편 고유명사는 지시적으로 사용될 때도 있지만 비지시적인 쓰임도 있다. 아래의 (8)의 고유명사는 세계에 존재하는 개체를 가리키는 지시적 명사구지만 (9)의 고유명사는 비지시적이다. (9가)의 ‘김영순’은 ‘김영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서술명사구’이다. (9나)의 “최종열” 또한 ‘최종열이라는 특정인’을 가리키지 않으며 이 문장은 “우리 회사의 그 누구도 최종열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절대존재문⁸⁾’이다.

8) 절대존재문은 ‘A가 있다/없다’의 A가 후술할 ‘변항명사구’(비지시적 명사구)인 존재문이다. (9나)의 ‘최종열은 없다’는 ‘[x가 최종열이다]를 충족하는 x의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를 의미한다. 니시야마(2003: 391-404)에 기반하여 풀이하면, 가령 절대존재문 ‘100미터를 3초에 달리는 인간은 없다’는 100미터를 3초에 달리는 어떤 인간을 가리켜 그가 특정한 장소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x가 100미터를 3초에 달리는 인간이다]를 충족하는 x의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를 말하고자 하는 존재문이다. 한편 ‘책상 위에 바나나가 있다’(장소존재문), ‘어머니는 부엌에 계신다’(소재문) 등은 A가 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적

(8) 가. 철수가 유리창을 깨뜨렸다.

나. 서울에 눈이 내렸다.

(9) 가. 난 김영순이야.

나. 혹시 거기 최종열이라는 분 계시나요? - 우리 회사에 최종열은 없는데요.

수식 표현을 동반하는 (4)의 “영희가 좋아하는 배우” 및 (10)과 같은 명사구들도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지시적 명사구이다.

(10) 가. 우리 마을은 교통이 매우 불편하다.

나. 목포 살인사건의 범인은 수년 전에 체포되었다.

다. 뉴욕에 살고 있던 내 친구의 아들은 미국에서 나고 자란, 말하자면 ‘2세’였다.

라. 남편이 다녔던 회사가 문을 닫았다.

지시적 명사구가 지시하는 대상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개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추상적인 개념이나 감정일 수도 있고 허구나 가정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일 수도 있다. (11)의 각 명사구는 특정 범주, 감각, 하나의 명제, 허구의 세계 속 대상, 가정 세계 속 대상, 꿈속의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적 명사구를 보인다.

(11) 가.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나. 바람이 잘 때까지 그 아픔을 참고 견딜 수밖에.

다. 지난해 소득수준이 전반적으로 나아진 것은 사실이다.

라. 물에 빠진 심청은 죽지 아니하고 용궁에 구조된다.

마. 혹 광야에서 신을 만난다면 애원해 보겠어.

바. 그리고 난 목조의 여인이 환하게 웃는 꿈을 꾸었다.

니시아마(2003: 64)에 의하면, 현실 세계의 대상과 허구 및 가정 세계의 대상의 질적인 차이는 존재론적인 문제이지 언어학적인 문제가 아니다. 위의 예시들에 나타난 명사구는 모두 가능한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대상을 지시한다는 점에서 모두 지시적 명사구라고 할 수 있다.

3.2. 비지시적 명사구

니시아마가 대표적인 비지시적 명사구로 든 것은 ‘서술명사구’와 ‘변형명사구’이다. 이하 차례로 살펴본다. (12)와 같은 기사문의 술어에 사용된 “학생”, “위대한 작곡가”, “천재”, “시골 한의사”는 각각 “철수”, “베토벤”, “아인슈타인”, “우리 아버지”의 속성을 나타내는 서술명사구이다.⁹⁾

(12) 가. 철수는 학생이다.

나. 베토벤은 위대한 작곡가다.

다. 아인슈타인은 천재다. (=1가)

라. 우리 아버지는 시골 한의사다.

9) ‘속성명사구’로도 불려 온 ‘서술명사구’라는 용어는 ‘술어명사구’나 ‘명사술어’라는 용어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술어명사구는 기사문의 술어 자리에 나타난 명사구를 통칭하며, 명사술어는 술어 자리에 형용사나 동사가 아닌 명사가 나타난 술어를 가리킨다. 술어명사구는 ‘주어명사구’(주어 자리에 나타난 명사구)와 대립되는 개념이며, 명사술어에 대립하는 것은 ‘형용사술어’, ‘동사술어’ 등이 되겠다. ‘~술어’를 갖는 문장이라는 의미로 ‘~술어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덧붙여, 강범모(2002), 이선웅(2006), 이병규(2009) 등에서 논의된 ‘술어명사’는 위에서 말한 술어명사구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며 이들 논의에서 말하는 술어명사는 이 논문의 관점에서 보면 ‘동작성 명사’ 혹은 ‘사태성 명사’로 불리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학생”은 (12가) 안에서 ‘특정한 학생’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다니며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철수의 ‘속성’을 나타낸다. 이는 (12나-라)도 마찬가지다. ‘A는 B이다’ 계사문의 B가 서술명사구인 경우, ‘B이다’는 상태적인 형용사술어나 동사술어와 유사한 의미기능을 한다.

- (13) 가. 내 차는 빨강다. cf. 내 차는 빨간색이다.
 나. 이 청년은 잘생겼다. cf. 이 청년은 미남이다.

또 하나의 비지시적 명사구인 변항명사구는 언뜻 서술명사구와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론적인 성격이 매우 다르다. (14)의 각 밑줄 친 명사구는 변항명사구이다. 주어의 속성을 술어로 나타내는 (12)와 달리 (14)는 술어에 내재된 질문에 주어로 대답하는 형식의 구문을 이룬다. 즉, (14)가 각각 ‘누가 반장이냐?’, ‘누가 영희가 좋아하는 배우냐?’, ‘뭐가 나의 인생 드라마냐?’, ‘뭐가 그 근본적 결점이냐?’, ‘누가 농악대의 지휘자냐?’라는 질문을 받았거나 그러한 질문의 내용이 화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발화되었다고 했을 때, (14)의 각 문장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각각 ‘철수’, ‘저 사람’, ‘겨울연가’, ‘사실이 많다는 것’, ‘팽과리를 치는 상쇠’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⁰⁾

- (14) 가. 철수가 반장이다. (=1나))
 나. 저 사람이 영희가 좋아하는 배우이다. (=5나)
 다. ‘겨울연가’가 나의 인생 드라마.
 라. 사실이 많다는 것이 그 근본적 결점이다.
 마. 팽과리를 치는 상쇠가 농악대의 지휘자다.

10) 만약 (14가)가 ‘누가 반장이냐?’가 아닌 ‘철수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혹은 철수가 어떤 사람인지가 화제가 되어 있는 문맥에서 발화되었다면 위의 논의는 해당하지 않으며 “반장”도 변항명사구가 아닌 서술명사구일 것이다. 이는 (14나-라)도 마찬가지다. (14)는 사용된 문맥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계사문의 중의성에 대해서는 후술 참조.

바꾸어 말하면, 변항명사구는 문장 내에서 변항 x 를 포함하는 의문사 의문문처럼 기능하는 명사구로서 논리적으로는 하나의 논항을 갖는 명제함수이다. (14가)는 “[x 가 반장이다]를 만족시키는 x 의 값은 ‘철수’다”, (14나)는 “[x 가 영희가 좋아하는 배우이다]를 만족시키는 x 의 값은 ‘저 사람’이다”, (14다)는 “[x 가 나의 인생 드라마다]를 만족시키는 x 의 값은 ‘겨울연가’다”, (14라)는 “[x 가 그 근본적 결점이다]를 만족시키는 x 의 값은 ‘사실이 많다는 것’이다”, (14마)는 “[x 가 농악대의 지휘자다]를 만족시키는 x 의 값은 ‘팽과리를 치는 상쇠’이다”와 같은 의미를 각각 전달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14)의 각 기사문은 4.2.에서 논의할 ‘지정문’인데, 변항명사구 자체는 지정문뿐 아니라 (15)와 같은 ‘잠복의 문문(潛伏疑問文)¹¹⁾’, (16)과 같은 ‘변화문(變化文)¹²⁾’, (17)과 같은 ‘존재문(存在文)¹³⁾’에도 나타난다.

-
- 11) 잠복의문문은 니시아마의 용어로, 예를 들어 (15가)는 “철수는 민호에게 영희가 좋아하는 배우가 누구인지를 알려줬다”와 같이 의문사가 포함된 내포문처럼 해석되는데, 이러한 의문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명사구를 포함하는 문장을 가리킨다. (15나)는 ‘출신지역이 어디인지’, (15다)는 ‘남의 월급이 얼마인지’ 등으로 해석되는 명사구를 포함하고 있다.
- 12) “그녀는 참 많이 변했다”와 같은 주어의 ‘변모(變貌)’를 나타내는 변화문은 변항명사구가 개입할 수 없고 (16)과 같은 ‘교체(交替)’를 나타내는 변화문만 변항명사구를 동반하는데, 한국어의 경우 전자는 {변하다}, 후자는 {바뀌다}와 궁합이 맞아 보인다. 어떤 사람이 예전과 다른 모습인 것을 보고 “그녀는 참 많이 변했다”라고 하지 “그녀는 참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집주인이 김철수에서 박동철로 명의이전 되었을 경우 “집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지 “집주인이 변했다”라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항상 친절하던 집주인 아저씨가 어느 날부터 불친절하다면 “집주인이 변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 경우 “집주인”은 변항명사구가 아닌 집주인 아저씨 김철수를 가리키는 지시적 명사구이다.
- 13) 변항명사구와 공기하는 존재문은 ‘절대존재문(絕對存在文)’ 및 이에 준하는 ‘소유문(所有文)’이다(니시아마 2003). “옆방에 영희가 좋아하는 배우가 있다”와 같은 ‘장소존재문(場所存在文)’은 ‘어떤 사람이 영희가 좋아하는 배우이다’라는 명제가 이미 전제되어 있으며 “영희가 좋아하는 배우”는 지시적 명사구이다. 따라서 “옆방에 원빈이 있다”로 바꾸어 말해도 진리치가 변하지 않는다. 일본어에서는 전통적으로 존재문 주어의 유정성(有情性)에 따라 존재동사 {iru}(유정)와

- (15) 가. 철수는 민호에게 영희가 좋아하는 배우를 알려줬다. (=5라))
 나. 고대에는 지방생들이 워낙 많은지라 출신지역을 서로에게 물어봤다.
 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월급에 관심이 많다.
- (16) 가. 영희가 좋아하는 배우가 장동건에서 원빈으로 바뀌었다. (=5다))
 나. 그러던 어느 날 건물 주인이 바뀌었다.
 다. 장소만 흠에서 원정으로 바뀌었다.
- (17) 가. 영희가 좋아하는 배우가 있다. (=5가))
 나.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다. 그 악사에게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요.

가령 (15나), (16다), (17다)는 각각 “[x가 출신지역이다]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을 서로에게 물어봤다”, “[x가 경기 장소이다]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이 흠에서 원정으로 바뀌었다”, “[x가 사랑하는 여자이다]를 만족시키는 x가 존재한다=어떤 여자를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비지시적 명사구는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을 가리키지 않기 때문에 그 명사구가 지시하는 같은 대상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말할 수 없다. 이는 지시적 명사구의 경우와 대조적인데, 지시적 명사구인 (10)의 각 밑줄 부분은 다음과 같이 같은 지시대상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말해도 진리치가 변하지 않는다.¹⁴⁾

- (10') 가. 우리 마을은 교통이 매우 불편하다. (‘우리 마을=중리동’이라면)

{aru}(무정)가 구별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konna koto-wo iuhito-ga aru(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마스오카·다쿠보[益岡·田窪] 1992)에서와 같이 유정 주어임에도 불구하고 {aru}가 쓰일 때가 있다. 니시아마는 이를 절대존재문에 한하는 현상으로 보았다.

14) 진리치가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언어적 의미가 같다는 것은 아니다.

→ 중리동은 교통이 매우 불편하다.

나. 목포 살인사건의 범인은 수년 전에 체포되었다. (‘목포 살인사건의 범인=김철수’라면)

→ 김철수는 수년 전에 체포되었다.

다. 뉴욕에 살고 있던 내 친구의 아들은 미국에서 나고 자란, 말하자면 ‘2세’였다. (‘뉴욕에 살고 있던 내 친구의 아들=ABC 축구단의 주장’이라면)

→ ABC 축구단의 주장은 미국에서 나고 자란, 말하자면 ‘2세’였다.

라. 남편이 다녔던 회사가 문을 닫았다. (‘남편이 다녔던 회사=아버지가 세운 회사’라면)

→ 아버지가 세운 회사가 문을 닫았다.

그러나 비지시적 명사구는 이러한 바꾸어 말하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령, (18가)의 “위대한 작곡가”는 특정 지시대상을 가리키지 않는 비지시적 명사구이기 때문에 “베토벤은 위대한 작곡가다”를, 가령 바흐가 위대한 작곡가라고 해서, “베토벤은 바흐다” 등으로 바꾸어 말할 수 없으며, 문장의 의미도 완전히 달라진다. (18나-라)도 마찬가지다.

(18) 가. 베토벤은 위대한 작곡가다. (‘위대한 작곡가=바흐’)

→ #베토벤은 바흐다.

나.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월급에 관심이 많다. (‘남의 월급=억대’)

→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억대에 관심이 많다.

다. 그러던 어느 날 건물 주인이 바뀌었다. (‘건물 주인=한국인’에서 ‘건물 주인=미국인’으로)

→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인/미국인이 바뀌었다.

라. 그 악사에게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자=귀족의 딸’)

→ #그 악사에게 귀족의 딸이 있어요.

이상 명사구의 의미를 개관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위에서 구분한 명사구가 기사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보고 기본적인 기사문의 종류를 나누어 보이겠다.

4. 기본형 기사문의 분류

두 명사구를 갖는 기사문의 분류는 영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기사문의 술어가 주어의 속성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구별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논의는 Halliday (1967a, 1967b, 1968)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일련의 연구에서 Halliday는 영어 문장의 술어를 타동성에 따라 크게 ‘확장형(extensive)’과 ‘집약형(intensive)’으로 구분했는데, 전자는 ‘행위(action)’가 주를 이루는 소위 타동사문(사역, 주동), 피동문, 자동사문이 들어가고 후자는 상태를 나타내는 술어가 해당한다. 그리고 {be}동사문에도 집약형과 확장형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훗날 주로 영어의 분열문 연구에서 중의성 논쟁을 일으킨 ‘predicational’과 ‘specificational’의 구분이었다. Halliday는 확장형 {be}동사문을 ‘동등(equative)’이라 부르고 이를 다시 두 종류로 하위분류했는데, 이는 대체로 이 논문에서 말하는 식별문과 지정문에 각각 해당한다.

(19) Intensive *be* clauses

가. John is a teacher.

나. John is very rich. (Halliday 1967a: 67)

(20) Extensive effective *be* clauses (equative)

가. (which am I?) you're the tall one. / the tall one is you.

나. (which is me?) the tall one is you. / you're the tall one.

(ibid.)

이렇게 {be}동사문을 구분함으로써 예를 들어 “John is the leader”라는 하나의 문장이 다섯 개(한 개의 서술문과 네 개의 비서술문, 즉 두 개의 식별문과 두 개의 지정문)의 의미로 해석 가능한 중의적인 문장이라는 것을 밝혔으며, 분열문도 동등의 일종으로 분석하였다(Halliday 1967b).¹⁵⁾ 이후 영어권에서는 분열문과 {be}동사문의 연구가 생성문법론자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져, Higgins(1979)에서는 이하의 네 가지 계사문이 제안되었다.

(21) Higgins(1979)의 영어 계사문 분류

- 가. John is a very nice person. (Predicational clause)
 나. The cause of the accident is drunk-driving.
 (Specificational clause)
 다. That man over there is John Smith. (Identificational clause)
 라. The morning star is the evening star. (Identity clause)

Higgins(1979)의 분류는 Halliday의 {be}동사문의 구분을 의미론, 화용론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네 종류의 계사문은 이 논문에서 수용하는 큰 분류(서술문, 지정문, 식별문, 동일문)와 일치하며, 특정 이론에 기대지 않고 영어 계사문을 기술적으로 정리한 Declerck(1988)은 위의 네 종류 이외에 “A pyramid is what the Egyptians built to bury their pharaos in”과 같은 ‘정의문(定義文, definitional clause)’을 비롯하여 몇 가지를 추가로 언급하였다. 일본어를 대상으로 한 니시야마(2003)는 이상의 모든 계사문이 일본어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으며, 이 외에도 아마노[天野](1995)에서 논의된 “tokuni osusumenano ga kono wain desu”(특별히 추천하는 것이 이 와인입니다)와 같은 계사문을 기준에 분류된 계사문과 성질을 달리한다고 보고

15) Halliday의 분열문은 비분열문적인 지정문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 논문의 입장은 구별된다.

‘제시문(提示文)’으로 따로 세웠다. 니시야마(2003)의 특징은 영어와 달리 조사를 갖는 일본어의 특성을 계사문의 분류에 접목하여 일본어학 연구의 단골 주제인 소위 {wa}와 {ga}의 차이가 의미론의 층위에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니시야마의 ‘措定文’, ‘指定文’, ‘同定文’, ‘同一性文’은 각각 이 논문의 서술문, 지정문, 식별문, 동일문을 가리킨다.

(22) 니시야마[西山](2003)의 일본어 계사문 분류

	‘A-wa B-da’	‘B-ga A-da’
1	措定文 “aitsu-wa baka-da” 저 녀석은 바보다	
2	倒置指定文 “kanji-wa tanaka-da” 간사는 다나카다	指定文 “tanaka-ga kanji-da” 다나카가 간사다
3	倒置同定文 “koitsu-wa yamada soncho-no jinan-da” 이 녀석은 야마다 촌장의 차남이다	同定文 “yamada soncho-no jinan-ga koitsu-da” 야마다 촌장의 차남이 이 녀석이다
4	倒置同一性文 “jikiruhakase-wa haidoshi-da” 지킬 박사는 하이드 씨다	同一性文 “haidoshi-ga jikiruhakase-da” 하이드 씨가 지킬 박사다
5	定義文 “gankai(to)-wa menoishasan-no koto-da” 안과의는(/란) 눈을 치료하는 의사다	
6		提示文 “tokuni osusumenano-ga kono wain-desu” 특별히 추천하는 것이 이 와인입니다

이 논문은 위의 여섯 가지 계사문 분류가 한국어에서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특히 Higgins(1979)의 네 가지 분류는 의미론적으로 명확히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어 논의에서 종종 혼동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하에서는 이 네 가지 분류를 한국어에 적용하되, 계사문을 구성하는 명사구의 성격 및 조사의 사용을 고려한 니시야마(2003)의 틀을 빌려 한국어를 설명해 보기로 한다. 이는 니시야마(2003)이 Higgins

(1979) 등의 영어 기사문 분류를 정교하게 다듬은 이론이라는 점, 같은 교착어인 일본어를 대상으로 조사의 실현까지 염두에 두었다는 점이 한국어의 설명에도 유효하기 때문이며, 나아가 이 논문의 주요 목적의 하나인 한일 대조 분석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4.1. 서술문

3.2.의 (12)에서 보인 ‘A는 B이다’문은 모두 A가 지시적 명사구, B는 서술명사구였다. 니시야마(2003)에서 ‘措定文’으로 지칭한 이러한 기사문을 여기서는 ‘서술문(敘述文, predicational sentence)’이라고 불러 보기로 한다.¹⁶⁾ 서술문 ‘A는 B이다’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3) A가 지시하는 지시대상이 B가 나타내는 속성을 갖는다.

이와 같은 정의에 따르면 (12)의 B인 “학생”, “위대한 작곡가”, “천재”, “시골 한의사”와 같은 부정명사구(不定名詞句)뿐만 아니라 (24)의 B인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 회사 사장”과 같은 정명사구(定名詞句)도 비지시적이며 문장 전체는 서술문이라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24) 가. 이승만은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다.

나. 그는 이 회사 사장이다.

서술문의 B는 속성을 나타내는 서술명사구라는 점에서 직시(deictic)

16) ‘措定文’은 전통적인 일본어 문법의 용어를 답습한 것이다. 한국어에서는 ‘속성문’, ‘분류문’ 등으로 불러 왔는데 여기서는 ‘서술명사구’의 명명 및 영어 표현에 따라 ‘서술문’이라 부르기로 한다. ‘敘述名詞句’(predicate nominal)는 니시야마의 논의에서도 채용되었으며 ‘屬性名詞句’(property NPs)는 ‘지시적 명사구의 속성적 용법’(Donnellan 1966 및 니시야마 2003 참조)과의 혼동을 막기 위해 사용이 기피되었다.

명사구나 조응표현, 수량사 표현은 올 수 없다. 따라서 (25)는 특정 문맥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서술문은 아니다.

- (25) 가. 저 여자는 나다.
나. 이건 이 차다.
다. 돼지는 세 마리다.

다른 주요 계사문과 다른 서술문의 큰 특징은 의미의 변화 없이 어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¹⁷⁾ (12)의 각 문장을 ‘B가 A이다’로 말하면 (12)와는 다른 의미가 되며 서술문도 아니다.

- (12') 가. 학생이 칠수다.
나. 위대한 작곡가가 베토벤이다.
다. 천재가 아인슈타인이다.
라. 시골 한의사가 우리 아버지다.

서술문은 종래 집합과 그 구성원의 관계로 인식되어 오기도 했다. 남기심(1986)은 “순호가 중학생이다”와 같은 {이다}구문이 ‘N2의 명사는 N1 명사의 소속, 곧 그것이 어느 유(類)에 속하는 것인가를 보여 주는 것’이라 하고 이를 ‘분류문(分類文)’이라 하였는데, 이러한 인식도 집합 개념에 기반한다. 그러나 “그는 이 회사 사장이다”라는 서술문에서 “이 회사 사장”이라는 집합 혹은 유(類)에 “그”가 속한다고 해석될 수 없으

17) 양정석(1986)은 {이다} 구문을 NP1과 NP2의 위치를 바꾸어도 진리조건적 의미가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으로 이분하고 각각 ‘대칭적 동일함의 {이다}(이다1)’, ‘반대칭적 동일함의 {이다}(이다2)’로 불렀는데, 이는 서술문과 기타 계사문의 구분만 가능한 기준이라 할 수 있겠다. 해당 연구는 남기심(1986)과 더불어 한국어 계사문의 선구적인 의미론이라 할 수 있는데, 90년대 이후의 계사문 논의는 형태론 및 통사론이 주가 되어 이들 의미론이 계승, 발전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며, “이 사람은 홍길동이다”라는 서술문도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집합 혹은 유(類)에 “이 사람”이 속한다는 의미일 수 없다. 이들은 단지 “그”와 “이 사람”이 “이 회사 사장”, “홍길동이라는 이름의 소유자”라는 속성을 지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¹⁸⁾

4.2. 지정문

3.2.의 (14)와 같이 술어 자리에 변항명사구가 온 기사문의 ‘지정문(指定文, specificational sentence)’으로 분류된다. 니시야마(2003)는 지정문 ‘B가 A이다’와 도치지정문(倒置指定文, inverted form of specificational sentence) ‘A는 B이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26) A라는 1항 술어를 만족시키는 값을 찾아 이를 B로 지정(specify)한다.

지정문은 3.2에서 기술한 대로 의문사를 포함하는 의문문에 대한 대답을 단문 안에서 실현하는 형식을 지니며, 서술문과 달리 ‘A는 B이다’로 어순을 바꾸어도 언어적 의미가 변하지 않는다.

(14') 가. 반장은 철수다.

나. 영희가 좋아하는 배우는 저 사람이다.

다. 나의 인생 드라마는 ‘겨울연가’다.

라. 그 근본적 결점은 사실이 많다는 것이다.

마. 농악대의 지휘자는 팽과리를 치는 상쇠이다.

지정문 ‘B가 A다’의 {이/가}는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것들 중 B만 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소위 ‘총기(總記)’(구노[久野] 1973)의 용법에

18) 니시야마(2003) 및 니시야마(2005)는 집합의 개념을 논리학적으로 설명하고 기사문 분석에 집합 개념은 적용되기 어려우며 필요하지도 않다고 주장하였다.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니시아마에 의하면 총기는 (i) 해당하는 것을 열거(listing)하는 것과 (ii) 다른 것을 배제(exhausting)하는 두 측면이 혼재되어 있으며 전자는 의미론, 후자는 화용론의 영역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지정문의 {ga}¹⁹⁾를 정의할 때도 (i)만으로 충분하다고 하였다. 조사의 용법에 대해서는 5절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도치지정문 ‘A는 B이다’는 소위 분열문과 의미적 연관성이 있다. 아래에서 동사문²⁰⁾ (27나)와 그 분열문 (27다)를 확인할 수 있는데, (27다)는 의문사를 포함한 의문문 (27가)에 대한 대답을 계사문으로 표현한 것으로, 지금까지의 논의에 의하면 도치지정문에 해당한다.

(27) 가. 누가 도둑을 잡았나?

나. 저 노인이 도둑을 잡았다.

다. 도둑을 잡은 것은 저 노인이다.

그런데 니시아마의 일본어를 대상으로 한 논의를 빌리면 (27다)는 {것}의 의미에 따라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것}을 단순히 보문자(complementizer)로만 본 (28가)의 해석과, {것}에 ‘사람’ 등의 어휘적 의미가 있는 의존명사로 본 (28나)의 해석이다. 전자는 동사문((27나))이 대응하지만, 후자는 (29가)와 같은 계사문(지정문)이 대응한다.

(28) 가. 누가 도둑을 잡았나 하면, 그것은 저 노인이다.

[(27다)의 분열문 해석]

나. 도둑을 잡은 {사람/자/분}이 누구냐 하면, 저 노인이다.

19) 한국어의 {이/가}에 견주어지는 일본어 조사. 실질적으로는 {이/가}와 다른 양상을 띤다. 후술 참조.

20) 분열문에 대한 분열 이전의 동사문은 ‘단순문(simple sentences)’, ‘비분열문(non-clefted sentences)’ 등으로도 불리는데, 이 논문에서는 ‘동사’를 소위 동사, 형용사, 존재사, 지정사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용언으로 이해하고 ‘동사문(verbal sentences)’을 사용하기로 한다.

[(27다)의 도치지정문 해석]

(29) 가. 저 노인이 도둑을 잡은 {사람/자/분}이다. [지정문]

나. 도둑을 잡은 {사람/자/분}은 저 노인이다. [도치지정문(비분열문)]

위의 논의는 ‘분열문’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와도 연관되는데, ‘~ 것은 ~ 이다’라는 언어형식만으로 분열문을 정의할 경우 분열문(27다)는 (28가)와 (28나)의 의미를 모두 가질 수 있는 중의적인 문장이 된다. 한편, 분열문이 ‘~ 것은 ~ 이다’와 같은 형식뿐만 아니라 대응하는 동사문도 존재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면 분열문(27다)는 (28가)의 의미만 갖는다. 니시야마는 동사문이 존재하는 경우만을 분열문으로 간주했는데,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29나)의 도치지정문은 분열문이 아닌 것이 된다. 이 논문은 니시야마의 ‘좁은 의미의 분열문’에 동의하는데, 니시야마의 지적대로 분열문(27다)와 비분열문적 도치지정문(29나)는 실질적으로 화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²¹⁾ 분열문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든 분열문이 도치지정문의 일종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며, 분열문이라는 도치지정문은 ‘B가 A이다’형의 지정문을 갖지 않는다는 -- 대신 ‘B가 ~’형의 동사문을 갖는다는 -- 것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

지정문에서 변항명사구 A에 암시된 x의 답을 지정하는 B는 앞서 보았듯 직시 표현이나 고유명사 등 지시적 명사구인 경우도 있지만, (30가)에서처럼 A와 같은 변항명사구인 경우도 있고, (30나-라)와 같이 명

21) 같은 의미라도 한국어는 (27다)보다는 (29나)와 같은 표현이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김지현 2018). 즉, 한국어에서는 분열문보다는 비분열문적인 도치지정문이 선호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어의 {것}이 일본어 {no}에 비해 단순한 보문자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사실과도 상통한다(호리에·파르테지[堀江・バルテジ] 2009). 한발 더 나아가, (27가)에 대한 대답으로 한국어는 명사술어문인 (27다)보다는 동사술어문 (27나)를 선호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는 한 언어에서 특정 사태를 표현할 때 어떤 문형을 더 많이 사용하는가 하는 문제와도 연관된 것으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사구가 아닐 수도 있다. (도치)지정문의 B는 반드시 지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어떤 표현이 변항의 값을 나타낸다는 사실과 그것이 지시적이거나 아닌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겠다(니시야마 2003: 140).

- (30) 가. 중요한 문제는 외국기업이 우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 나. 중요한 문제는 외국기업이 우리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 다. 앞으로의 과제는 통일 외교를 얼마나 훌륭하게 이룩하느냐이다.
- 라. 우리나라에서 왕이라는 칭호를 쓰기 시작한 것은 고구려 때부터이다. (=2나)

4.3. 식별문

‘식별문(識別文, identificational sentence)’은 Declerck(1988)에서 ‘descriptively-identifying’으로 불렸다. Declerck(1988)의 식별문은 기본적으로 지정(specification)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지정된 대상을 화자가 특정할 수 없을 때 그에 대한 묘사를 통해 대상을 특정하는 기사문으로 (31)에서 을의 두 번째 발화문이 이에 해당한다.

- (31) 갑: 누가 일등 했지?
- 을: 도민준이 일등 했어.
- 갑: 도민준이 누군데?
- 을: 도민준은 도지훈 교수 둘째 아들이야.

해당 기사문 자체는 “도민준”이 갑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서술문으로도 해석되지만, 위의 문맥에서는 갑이 모르는 (혹은 특정하지 못하는) “도민준”이 가리키는 대상을 갑이 가진 정보와 연결함으로써 특정할 수 있게 한다는, 서술문과는 다른 해석을 지닌다. 이러한

식별문 ‘A는 B이다’가 서술문과 다른 또 하나의 큰 특징은 의미 변화 없이 ‘B가 A이다’로 말할 수 있다는 점이다.

(31') 도지훈 교수 둘째 아들이 도민준이야.

니시아마(2003: 168)는 이 구문의 특징을 ‘A의 지시대상에 대해 “그게 대체 무엇(누구)인가”를 문제 삼고 그 대답을 “바로 B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라 하고 ‘B가 A이다’형을 ‘同定文’, ‘A는 B이다’형을 ‘倒置同定文’이라 하였다. 즉, ‘B가 A이다’형의 식별문은 A가 지시적 명사구라는 점에서 A가 비지시적 명사구(변항명사구)인 지정문과 다르며, ‘A는 B이다’형의 도치식별문은 의미 변화 없이 어순이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서술문과 다른 것이다. (도치)식별문의 A는 (31)과 같이 고유명사인 경우도 있지만, 직시 명사구나 일반적인 명사구인 경우도 있다. 어떤 종류의 명사구가 오든 A는 지시적 명사구이다. (32)가 도치식별문, (32')가 식별문의 예이다.²²⁾

(32) 가. 저 사람은 김 사장 큰딸이다. (=1다))

나. (2년 동안 이와 관련된 5000개 이상의 사례를 모았고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30개를 추렸다.) 이 책은 30개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조사한 결과를 모은 것이다.

다. 짐은 피나는 노력과 오랜 시간 그리고 서로의 희생으로만 지을 수 있는 것이다.

(32') 가. 김 사장 큰딸이 저 사람이다. (=1다))

나. 30개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조사한 결과를 모은 것이 이 책이다.

22) (도치)식별문의 B도 지시적 명사구이나 B를 같은 지시대상의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말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시적으로 불투명한’ 구문으로 불리는데, 이에 대해서는 니시아마(2003)를 참조할 것.

다. (집은 짓는 것이다. 그것은 아이들의 집 짓기 놀이 도구처럼 금세 짓고 허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중략) 남의 것과 바꿀 수도 없는 것이다.) 피나는 노력과 오랜 시간 그리고 서로의 희생으로만 지을 수 있는 것이 집이다.

4.4. 동일문

(1라)와 같은 문장은 담화 참가자가 인식하고 있는 ‘지킬 박사’가 가리키는 인물이 ‘하이드 씨’가 가리키는 지시대상과 다름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B가 A이다’형의 ‘동일문(identity sentence)’이다. 니시야마(2003)에서는 ‘同一性文’이라고 하고 (33’)와 같이 도치된 ‘A는 B이다’형 문장을 ‘倒置同一性文’이라고 하였다. 후자를 여기서는 ‘도치동일문’이라고 불러 보자.

- (33) 가. 하이드 씨가 지킬 박사다. (= (1라))
 나. 금성이 셋별이다.
 다. 콧소리가 비음이다.
 라. 은행을 턴 자가 스미스를 죽인 자다.
- (33’) 가. 지킬 박사는 하이드 씨다. (= (1라))
 나. 셋별은 금성이다.
 다. 비음은 콧소리다.
 라. 스미스를 죽인 자는 은행을 턴 자다.

동일문은 다른 계사문, 특히 지정문과 같이 취급되거나 혼동되어 온 경향이 있는데 어떤 계사문이 지정문과 동일문의 해석을 다 갖는 중의적인 문장일 수는 있지만, 이 둘은 의미론적으로는 구별된다(Higgins 1979, Declerck 1988, 니시야마 2003). (도치)동일문의 A와 B는 모두 지시적 명사구이다. 이 점에서 A가 변항명사구인 지정문이나 B가 서술명사구인 서술문과는 명확히 구분된다.

지금까지 네 종류의 기사문을 살펴보았다. 앞서 한 문장이 여러 종류의 기사문으로 해석될 가능성 즉 중의성에 대해 앞서 언급하였는데, 여기서는 (33라)를 통해 기사문의 다양한 해석에 접근해 보겠다. (33라)는 지정문과 식별문, 동일문의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한 중의적인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미스를 죽인 범인을 찾고자 하는 담화 참여자들이 전과자들의 목록을 살펴보며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이 상황에서는 ‘누가 스미스를 죽였는가?’라는 의문문이 전제되어 있으며 그때 누군가가 (33라) “은행을 털 자가 스미스를 죽인 자다”라고 했다면 이는 ‘x가 스미스를 죽인 자다’라는 명제의 변항 x의 값을 “은행을 털 자”로 지정하는 지정문이다. 다음으로, 담화 참여자들이 스미스를 죽인 자에 관해 이야기하거나 혹은 그의 사진을 보면서 도대체가 사람의 정체는 무엇인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33라)를 말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들은 며칠 전에 누군가가 은행을 털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 경우 (33라)는 식별문이다. 마지막으로, 담화 참여자들이 “스미스를 죽인 자”와 “은행을 털 자”를 각각 인식하고 있으나 그들이 같은 인물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33라)를 말했다면 이는 동일문이다. 지정문과 식별문 및 동일문은 모두 도치가 가능하므로 (33'라)도 도치지정문, 도치식별문, 도치동일문의 세 가지로 해석 가능한 중의적인 문장이라 하겠다.

5. 한국어 기사문과 조사의 특징

네 종류의 주요 기사문이 영어나 일본어와 같이 한국어에도 존재함을 보았는데, 의미론적으로 보았을 때 이들 기사문은 범언어적이거나 각 언어의 형태는 달리 실현된다. 특히 한국어와 일본어는 ‘A is B’ 혹은 ‘B is A’만으로 실현되는 영어와 달리 A나 B에 다양한 조사가 나타날 수 있다.²³⁾ 이 절에서는 기사문의 조사가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어떻게

같이, 또 달리 실현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보겠다. 4절에서 살펴본 한국어 계사문의 종류와 그에 사용되는 조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4) 'A는 B이다'형		'B가 A이다'형	
아인슈타인은 천재다.	[서술문]	-	
반장은 철수다.	[도치지정문]	철수가 반장이다.	[지정문]
저 사람은 김 사장 큰딸이다.	[도치식별문]	김 사장 큰딸인 저 사람이다.	[식별문]
지킬 박사는 하이드 씨다.	[도치동일문]	하이드 씨가 지킬 박사다.	[동일문]

이를 (22)에서 보인 니시야마(2003)의 일본어 계사문의 분류와 비교해 보면, 일본어에서 {wa}로 나타난 서술문, 도치지정문, 도치식별문, 도치동일문의 A에 {은/는}이, 일본어에서 {ga}가 사용된 지정문, 식별문, 동일문의 B에 {이/가}가 실현되었는데, 한국어 표현으로서도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언어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하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한국어는 (34)와 같은 체계가 완성형이라고 하기 어렵다.

(22) 및 (34)와 같은 계사문의 분류에서 명사구 A의 의미적, 화용적 공통성은 발화현장에 존재하거나 선행문맥에 등장했거나 하여 화자의 의식 속에 활성화되어 있는, '기준점이 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니시야마에 의하면 일본어의 경우 이러한 명사구 A에는 {ga}가 붙을 수 없으며 {wa}만이 가능하다.²³⁾ 반대로 기준점이 되는 개념에 연결하는 B에는 반드시 {ga}만이 붙을 수 있고 {wa}는 나타날 수 없다. 이렇듯 (22)와 같은 체계에서 일본어 조사 {wa}와 {ga}의 실현은 매우 견고하며, 말하자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 앞서 보았듯 계사문의 의미론은 언어를 넘어서는 것이지만, 일본어의 조사 {wa}와 {ga}는 계사

23) 영어는 이러한 차이를 강세 등 비형식적인 음조로 나타낸다(Halliday 1967a).

24) 여기서는 일단 무조사, {mo}(도), {sae}(조차) 등의 다른 조사류가 사용되는 경우는 논외로 한다.

문의 체계를 완성하는 중요한 기제이기도 한 것이다.

한국어의 경우 ‘B가 A이다’형의 지정문, 식별문, 동일문이 ‘B는 A이다’로 실현될 수는 없어 보이지만 ‘A는 B이다’형의 계사문은 ‘A가 B이다’로도 실현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한국어 말뭉치 등에서 가져온, ‘A가 B이다’로 나타난 서술문, 도치지정문, 도치식별문, 도치동일문의 예시다.²⁵⁾

(35) 가. 그 사람이 수학적으로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야.

나. 그럼 안 보는 과목이 뭐예요? -- 안 보는 게, 아 우리말 연구.

다. 저 사람이 강수만이라고 아까 그 아이의 외삼촌이 되는 사람이우.

라. 이민형 씨가…… 준상이야. (드라마 ‘겨울연가’, cf. iminyon san -wa……junsan nanda)

위의 {이/가}는 {은/는}으로 실현되어도 의미론적인 차이가 없으며

25) 이들 계사문을 일본어로 나타낸다면 모두 {wa}로 실현될 것이다. 최윤지(2016: 260-261)에서는 분열문 분석에서 (35나)와 비슷한 “‘세종대왕이 한글을 언제 발명했지?’ -- (a) “세종대왕이 한글을 발명한 게…… 아마 1443년이지”라는 예문을 들고 일본어에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있다고 하였다. 즉, (a)와 같은 문맥에서 일본어도 {ga}가 사용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당 논문에서 예로 든 아마노(1995)의 (b) “Gesuto no nakade tokuni chumoku shitai no ga nyuyoku shiti bare no Darsey Kusler desu ne. (손님 중에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이 뉴욕시 발레단의 다시 쿠슬러예요)”라는 일본어 문장은 4절에서 언급한 제시문이며 (a)와는 다른 계사문이다. 아마노(1995)는 (b)를 {ga}가 사용된 도치지정문(아마노의 용어로는 ‘後項焦点文’)이라고 보았는데, 이 논의가 정당하다면 최윤지(2016)의 주장은 타당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구마모토[熊本](2000), 니시야마(2003)는 아마노의 논의를 비판하고 (b)는 도치지정문이 될 수 없으며 (a)와 같은 도치지정문에서는 {ga}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니시야마는 제시문을 노다[野田](1996) 등의 견해에 따라 ‘중립서술문(中立叙述文)’으로 보고 새로운 유형의 계사문으로 처리했다. 니시야마의 지적대로 제시문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치 않은 점도 많으나 한국어와 일본어가 제시문에서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면서도 도치지정문 (a) 및 (35나)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비대칭적인 현상 자체가 제시문과 도치지정문이 서로 다른 계사문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하나의 증거라 하겠다.

한국어로서도 특별히 부자연스럽지 않다. 이는 한국어의 서술문, 도치지정문, 도치식별문, 도치동일문이 ‘A는 B이다’형으로도, ‘A가 B이다’형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34)에 적용하면 한국어의 계사문 체계는 다음과 같이 재정리할 수 있다.

(36) ‘A는/가 B이다’형		‘B가 A이다’형	
아인슈타인은/이 천재다.	[서술문]	-	
반장은/이 철수다.	[도치지정문]	철수가 반장이다.	[지정문]
저 사람은/이 김 사장 큰딸이다.	[도치식별문]	김 사장 큰딸이 저 사람이다.	[식별문]
지킬 박사는/가 하이드 씨다.	[도치동일문]	하이드 씨가 지킬 박사다.	[동일문]

기준점이 되는 A를 {이/가}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한국어는 {은/는}뿐 아니라 {이/가}도 화자의 의식 속에 활성화되어 있는 개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한국어의 특징은 화자의 의식 속에 활성화되어 있는 기준점이 되는 개념은 반드시 {wa}로 나타내야 하는 일본어와의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지정문, 식별문, 동일문에서 ‘B가 A이다’만 가능하다는 것은 화자의 의식 속에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개념은 {이/가}로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점에서 {이/가}는 일본어의 {ga}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단, {ga}는 ‘화자의 의식 속에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개념에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 ‘화자의 의식 속에 활성화된’ 개념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매우 엄격한 사용 조건을 갖지만, {이/가}는 전자의 조건만 가짐으로 인해 사용반경이 {ga}보다 넓다 하겠다.

이상의 논의는 계사문에 한정되지 않는다. 니시야마는 계사문을 모든 형태의 문장의 기본으로 보았고, 신야[新屋](2014)도 계사문의 분류가 다른 문장 일반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계사문에 나타나는 한국어와 일본어 조사의 실현양상은 두 언어의 일반적인 조사 실현양상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과거에 지적되어 온 한일 조

사의 차이를 위에서 설명한 언어들로 재정리할 수 있다. 한국어의 {은/는}, {이/가} 및 일본어의 {wa}, {ga}는 모두 각 언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며 비슷한 의미기능을 하는 조사들이라는 점에서 대조연구의 주된 논점이 되어 왔다. 특히 {은/는}={wa}, {이/가}={ga}처럼 보이는 (22)와 같은 예가 다수 존재하는 반면 이와 배치되는 (37)과 같은 예를 어떻게 설명할지가 큰 관심거리였다.

- (37) 가. 고베 대학이 어디 있습니까? *kobe daigaku-ga doko-ni arimasuka.
 나. 오늘의 어머니날이지요? *kyo-ga hahanohi-desune.
 다. 이것의 무엇입니까? *kore-ga nan-desuka.
 라. 네가 스무 살이지? *kimi-ga hatachi-deshitane.

(다쿠보[田窪] 1990)

한국어에서 {이/가}가 사용되는 문장에서 일본어는 {ga}를 사용할 수 없고 {wa}만이 가능한 이와 같은 현상은 종래 한일대조연구에서 종종 지적되었으며 많은 경우 {은/는}과 {wa}, {이/가}와 {ga}의 기본적인 의미기능은 같다고 보고 이에서 벗어나는 (37)과 같은 예를 정보의 신구(新舊)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가령, 다쿠보(1990)은 일본어가 담화의 초기치가 높음(구정보가 많음)으로 인하여 한국어에서 {이/가}로 나타나는 명사구가 일본어에서는 {wa}로 나타난다고 하였고, 유타니[油谷](2005)도 ‘여기, 오늘, 나’와 같은 발화참여자 간에 인지된 명사들이 일본어에서는 구정보로, 한국어에서는 신정보로 취급되기 때문에 각각 {wa}와 {이/가}를 취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는 (35)에서 보듯 한국어나 일본어 모두에서 구정보로 여겨지는 “그 사람”, “안보는 과목”, “저 사람”, “이민형 씨” 등의 명사구에 {이/가}가 사용되는 현상, 그리고 이들을 {은/는}으로 표현해도 한국어로서 이상하지 않은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한편 박진호(2015: 384)에서는, 일본어는 주어

에, 한국어는 주어라 지시적 구정보이면 {은/는}을, 지시적 신정보이면 {이/가}를 붙인다고 하였다.²⁶⁾ 이는 정보구조의 개념을 넓혀 (37)과 같은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 것이겠으나 (37)의 “고베 대학”, “오늘”, “이것”, “나”와 같은 명사구가 어떤 연유로 관계적 구정보이면서 지시적 신정보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고, (35)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앞선 논의들과 다를 바가 없다. (35)의 각 문장은 모두 지시적 구정보인 명사구에 {이/가}가 사용되었다. 더 간단한 예로, 가령 “철수와 영희 중에서 누가 키가 크냐?” -- “영희가 키가 커요”에서 답변의 “영희”는 지시적 구정보이지만 {이/가}만이 가능하다. 정보구조라는 틀은 적어도 한일 조사의 사용을 설명하기에는 정밀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으며 정보론이 조사의 논의에 한계를 갖는다는 사실은 간바야시[上林](1988) 등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위의 선행 논의들은 모두 두 언어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일부 예를 설명하기 위해 조사의 용법을 정보론적 이분법으로 정의했으며, (36)의 ‘A는/가 B이다’형 기사문과 같은 {은/는}과 {이/가}가 모두 가능한 경우나 ‘B가 A이다’형과 같은 한일 두 언어가 같은 경우를 아우르는 통일적인 설명은 어렵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말할 것도 없이, “영희가 키가 커요”는 이 논문에서 말하는 지정문의 확장형이며, (37가)와 (37다)는 도치지정문²⁷⁾, (37나)와 (37라)는 서술문의 {이/가}이다. 지정문은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각각 {이/가}, {ga}만이 가능하며 한국어의 도치지정문과 서술문은 {은/는} 및 {이/가}가 모두 가능하다는 것은 상술한 바대로이다. 이에 더해 기존 논의에서

26) 박진호(2015)에 따르면, 관계적 구정보/신정보는 화제와 평언으로 분절되는 구조를 갖는 정언문(categorical sentence)의 주어(명사구)와 술어(명사구)를, 지시적 구정보/신정보는 청자의 머릿속에 활성화되어 있는 것과 아닌 것을 각각 가리킨다.

27) 도치지정문은 의문사를 포함하는 의문문에 대한 대답을 단문 안에서 실현하는 형식의 “반장은 철수다”와 같은 기사문이라는 것을 논의했는데, 의문형식 “반장은 누구냐?”도 같은 도치지정문(도치지정의 의문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원리로 “누가 반장이냐?”는 지정문(지정의 의문문)이다.

간과되어 온, (35)의 도치식별문과 도치동일문도 한국어는 {이/가}로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이 논문에서는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는 (36) 및 (22)의 기사문 체계로써 조사 {은/는}, {이/가}, {wa}, {ga}의 의미기능을 기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각각의 조사는 ‘서술의 {은/는}’, ‘지정의 {이/가}’ 등으로 지칭함으로써 그 의미론적 기능이 설명되는 것이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다른 점은 ‘서술’, ‘도치지정’, ‘도치식별’, ‘도치동일’을 나타내는 조사가 일본어는 {wa}뿐이지만 한국어는 {은/는}과 {이/가}가 존재한다는 것이며, 가령 ‘서술의 {은/는}’과 ‘서술의 {이/가}’의 차이 및 ‘도치지정의 {은/는}’과 ‘도치지정의 {이/가}’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기술하는 일은 한국어 고유의 과제이다. 이에 관해서는 김지현(2018)에서 지적된, 한국어의 표현이 일본어와 비교해 ‘주어-술어’ 구조가 우선한다는 관찰이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을 듯하다. 바꾸어 말하면, ‘A가’는, 화자의 의식 속 활성화 여부와 무관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사태의 중심이 되는 개념(central entity) A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은/는}은 (36)의 ‘A는/가 B이다’형 기사문에 한해서는 일본어의 {wa}와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었지만 예를 들어 (37) 및 (35)의 각 {이/가}를 {은/는}으로 표현하면 ‘대조’의 의미가 강해진다. 이런 경향은 특히 구어에서 더욱 심하다. 니시아마의 ‘총기’에 관한 관찰 방식을 빌려 구노(1973)의 ‘대조’를 설명하자면, ‘대조’는 (i) 해당하는 것을 설정(setting)하는 것과 (ii) 다른 것과 대비(comparing)하는 두 측면이 혼재되어 있으며 전자는 의미론, 후자는 화용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은/는}을 사용함으로써 대조의 의미가 강해진다는 사실을 조사 자체의 성향으로 설명한다면, {은/는}은 {wa}보다 대비의 측면이 부각되기 쉬우며 화용론 층위에 더 가까운 조사라고 할 수 있겠다. 반대로, {wa}는 (22)의 의미론 체계에서 확고한 위치를 정립하여 ‘A-wa B-da’형 기사문에서도 대비의 의미가 두드러지지 않고 한국어 {이/가}와 가까운 양상을 보인다. Shibatani(1990)에서 일본어의 주제(topic) 구조를 인구어의 주술 구조로 파악하고 {wa}를 일본어의 주어 조사로 본

것도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일본어의 {ga}가 (35)나 (37)과 같은 문맥에서 사용되기 힘든 것은 ‘배제’의 의미가 부각되기 쉽기 때문이라 생각되는데, 화용론적 의미를 포함한 조사 자체의 의미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여기서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주요 조사 {은/는}, {이/가}, {wa}, {ga}에 대한 기존의 논의가 계사문의 의미론을 통해 재정립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²⁸⁾

6. 맺음말

이 논문에서는 계사와 계사문의 정의에 대한 재고로부터 시작하여 문장 내의 명사구를 의미에 따라 분류하고 이에 기반하여 한국어의 계사문을 네 종류로 분류, 분석적으로 기술하였다. 계사문은 더 다양한 구분이 가능하나 이 글에서 제시한 서술문, 지정문, 식별문, 동일문은 다른 관련 구문 논의의 토대가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계사문이라 하겠다. 논의의 이론적 기반은 일본어를 대상으로 한 니시야마(2003)이지만,²⁹⁾ 한국어와 일본어의 대조분석을 통해 두 언어는 조사의 실현에 있어서 유의미하게 다르다는 것도 기존의 연구와 다른 방식으로 논의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계사문을 넓게 정의하고 그 핵심적인 것들부터 살펴보았는데, 다음 과제는 (2)와 (3)에서 보인 특이형과 확장형

28) 김지현(2016)에서는 이 논문에서 논한 ‘지정의 {이/가}’, ‘서술의 {이/가}’에 해당하는 것을 각각 ‘배타’, ‘지정’이라 하고, {은/는}과 {wa}의 공통의미인 ‘대비’와 {wa} 특유의 ‘설정’을 정립하는 등, 이 논문과 상통하는 관점에서 실증적이고 기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서술 및 도치지정의 {이/가}’에 대한 선구적인 관찰은 任洪彬(1972)에서 이루어진 바 있으며 최윤지(2016)에서도 정보구조론의 관점에서 이를 인지한 논의가 보인다.

29) 니시야마(2003)은 명사구 및 명사구 관련 구문의 논의를 중심으로 더욱 정교하고 방대한 니시야마편[西山編](2013)으로 전개되었다.

계사문의 분석이 될 듯하다. 2절에서 간략히 언급했듯이 이들 구문은 성립 여부 자체가 해당 언어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비슷한 언어구조를 가진 일본어와의 대조분석은 한국어의 특징을 더욱 명확하게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강범모(2002), 술어 명사의 의미 구조, 《언어학》 31, 3-29.
- 고창수(1992), 국어의 통사적 어형성, 《국어학》 22, 국어학회, 259-269.
- 고창수(2007), 《한국어의 접사 체계》, 한성대학교출판부.
- 金光海(1983), 繫辭論, 《蘭臺 李應百博士回甲紀念論文集》, 1-11.
- 김의수(2002), 형식동사 '이다'의 문법, 《어학연구》 38-3, 879-905.
- 김주원(1994), 알타이제어의 계사, 《주시경학보》 13, 103-115.
- 남기심(1986), '~이다' 구문의 통사적 분석, 《한불연구》 7, 1-15.
- 남기심·고영근(1985),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남길임(2004), 《현대 국어 '이다' 구문 연구》, 한국문화사.
- 목정수(2009), 《한국어, 문법 그리고 사유》, 태학사.
- 박진호(2015), 보조사의 역사적 연구, 《國語學》 73, 375-435.
- 박철우(2006), '이다' 구문의 통사구조와 {이}의 문법적 지위, 《한국어학》 33, 253-263.
- 배주채(2001), 지정사 활용의 형태음운론, 《國語學》 37, 33-59.
- 서정수(2006), 《국어문법》, 한세본.
- 시정곤(1993), '-이다'의 '-이-'가 접사인 몇 가지 이유, 《주시경학보》 11, 143-149.
- 시정곤(2005), '이다' 구문과 통사적 접사설을 다시 논함, 《한국어학》 28, 55-80.
- 안명철(1995), '이'의 문법적 성격 재고찰, 《國語學》 25, 29-49.
- 양정석(1986), '-이다'의 의미와 통사, 《연세어문학》 19, 5-29.
- 양정석(2001), '이다'의 문법범주와 의미, 《國語學》 9-4, 337-380.
- 양정석(2003), '이-' 주격조사설에 대한 반론, 《형태론》 5-1, 99-110.
- 양정석(2010), 《한국어 통사구조론》, 한국문화사.
- 양정호(2003), '이다'의 문법범주에 대한 고찰, 《형태론》 5-2, 255-271.
- 嚴正浩(1989), 소위 指定詞 構文의 統辭構造, 《國語學》 18, 110-130.
- 嚴正浩(1993), '이다'의 범주 규정, 《국어국문학》 110, 317-332.
- 우순조(2001), '이다'의 '이'가 조사인 새로운 증거들, 《형태론》 3-2, 345-358.
- 우순조(2006), 활용 개념과 소위 '이다'와 관련된 오해들: 표지이론적 관점에서, 《언어학》 44, 79-121.
- 이광정(2008), '이다' 연구의 사적 고찰, 《국어문법연구III-한국어 품사 연구》, 도서출판 역락, 407-424.
- 이병규(2009), 《한국어 술어명사문 문법》, 한국문화사.

- 이선웅(2006), 술어명사구와 동사구의 동질성과 이질성, 《우리말글》 38, 107-133.
- 任洪彬(1972), 국어의 주제화 연구, 《國語研究》 28, 1-108.
- 임홍빈(2006), 정체 발힘의 형용사 ‘이다’ 문제와 언어, 《어문학 연구의 넓이와 깊이》, 도서출판 역락, 287-376.
- 최기용(2001), ‘-이다’의 ‘-이’는 주격 조사이다, 《형태론》 3-1, 101-112.
- 최윤지(2016), 한국어 정보 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화상(2005), ‘이다’의 문법범주 재검토, 《형태론》 7-1, 135-153.
- 天野みどり(1995), 「が」による倒置指定文-「特におすすめのものがこれです」という文について-, 《人文科學研究》 88, 1-22.
- 生越直樹·尹盛熙·金智賢·新井保裕(2018), 省略現象から見えてくること—磁石
な日本語と「チェーン」な韓国語—, 《社會言語科學會 第42回發表論文集》,
236-245.
- 尾上圭介(1998), 一語文の用法—“いま・ここ”を離れない文の検討のために—, 《東京
大學國語研究室創設百周年記念國語研究論集》, 888-908.
- 上林洋二(1988), 指定文と指定文—ハとガの一面—, 《文藝言語研究: 言語篇》 14,
57-74.
- 金恩愛(2003), 日本語の名詞志向構造と韓国語の動詞志向構造, 《朝鮮學報》 188,
(1)-(83).
- 金智賢(2016), 《日韓對照研究によるハとガと無助詞》, ひつじ書房.
- 金智賢(2017), 一項名詞文から見る「이다」と「だ」の意味機能, 第256回朝鮮語研究會發
表要旨, 1-12.
- 金智賢(2018), 分裂文から見る日韓のコピュラの特徴, 《日本言語學會第157回大會予
稿集》 52-57.
- 金智賢(2019), 日本語と韓国語のウナギ文について, 《科研費成果發表公開シンポジウ
ム 日韓兩語の「省略」は何を語るか—言語の個別性と普遍性に向けて— 予稿
集》, 48-62.
- 熊本千明(2000), 指定文と措定文—日・英語の觀察から—, 《佐賀大學文化教育學部研
究論文集》 5-1, 81-107.
- 久野暲(1973), 《日本文法研究》, 大修館書店.
- 新屋映子(2014), 《日本語の名詞指向性の研究》, ひつじ書房.
- 田窪行則(1990), 對話における知識管理について—對話モデルからみた日本語の特性
—, 《アジアの諸言語と一般言語學》, 三省堂, 837-845.
- 西山佑司(2003), 《日本語名詞句の意味論と語用論—指示的名詞句と非指示的名詞句

一), ひつじ書房.

西山佑司(2005), コピュラ文の分析に集合概念は必要であるか, 《日本語文法》5-2, 74-91.

西山佑司編(2013), 《名詞句の世界—その意味と解釋の神秘に迫る—》, ひつじ書房.

日本語文法學會編(2014), 《日本語文法辭典》, 大修館書店.

野田尚史(1996), 《新日本語文法叢書1 「は」と「が」》, くろしお出版.

益岡隆志・田窪行則(1992), 《基礎日本語文法—改訂版—》, くろしお出版.

三上章(1953), 《現代語法序説—シンタクスの試み—》, 刀江書院.

三上章(1963), 《日本語の論理—ハとガー—》, くろしお出版.

堀江薫・プラシャント・パルテジ(2009), 《言語のタイポロジー》, 研究社.

油谷幸利(2005), 《日韓對照言語學入門》, 白帝社.

Croft, W. (1991), *Syntactic Categories and Grammatical Relations*, Chicago,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Declerck, R. (1988), *Studies on Copular Sentences, Clefts and Pseudo-Clefts*,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Dixon, R. M. W. (2010), *Basic Linguistic Theory: Volume 2 Grammatical Top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Donnellan, K. S. (1966), Reference and Definite Description, *Philosophical Review* 75-3, Duke University Press on behalf of Philosophical Review, 271-304.

Halliday, M. A. K. (1967a), Notes on transitivity and theme in English: Part 1, *Journal of Linguistics* 3-1, 37-81.

Halliday, M. A. K. (1967b), Notes on transitivity and theme in English: Part 2, *Journal of Linguistics* 3-2, 199-244.

Halliday, M. A. K. (1968), Notes on transitivity and theme in English: Part 3, *Journal of Linguistics* 4-2, 179-215.

Higgins, F. R. (1979), *The Pseudo-cleft Construction in English*, London: Routledge(2015).

Pustet, R. (2003), *Copulas: Universals in the Categorization of the Lexicon*, Oxford Studies in Typology and Linguistic The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hibatani, M. (1990), *The Languages of Japa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tassen, L. (1997), *Intransitive Predic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889-2192 日本國宮崎縣宮崎市學園木花台西1-1 宮崎大學多言語多文化教育研究センター]

전화: +81-0985-58-7436

E-mail: jkim@cc.miyazaki-u.ac.jp

투고 일자: 2019. 11. 10.

심사 일자: 2019. 12. 07.

게재 확정 일자: 2019. 12. 18.

Semantics of Noun Phrases and Copular Sentences in Korean:
contrastive analysis with Japanese

[Kim, Jihyun]

한국어 명사구와 계사문의 의미론 -일본어와의 대조를 곁하여-

[김지현]

This paper aims to establish the semantic taxonomy of Korean copular sentences. The meaning of the copula and NPs is discussed before the classification of copular sentence types. Following the foundational arguments of Higgins(1979) and Nishiyama(2003), this paper describes how the copular sentences are split into four different types: predicational, specificational, identificational, and identity sentences. A detailed analysis is given for each type of sentences through proper examples. The cleft structure is also examined regarding the specificational. The contrastive analysis of Korean and Japanese is a significant issue of this paper due to the fact that Korean copular sentences have their own distinct characteristics particularly in the use of particles compared to Japanese ones. Further arguments with many other copular sentence types will be studied in a future paper.

Key words: copular sentences, noun phrases, semantics, Japanese, contrastive analysis